05□□□_□□□□□□16□ 14. 2. 10. □□ 3:21 Page 105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6호 2013.12. pp.105~136.

김정은 시대의 북한 연극

—2011년 이후 희곡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plays in Kim Jong-un era

황희정(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1. 서론
2. 과거의 소환: 「오늘을 추억하리」
3. 새 지도자로의 접속: 「사랑」
4. 업적 만들기 프로젝트: 「새 세기의 봄」
5. 결론

1. 서론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8년 8월부터로 볼 수 있다.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과 공식석상에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2009년 1월 김정일의 교시로 후계자에 내정되었으며,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대장' 칭호를 부여받은데 이어 다음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북한의 공식매체가 김정은의 이름을 처음 보도한 것이다. 또한 당시 김정은이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의 부위원장직은 기존 북한 노동당에 없던 직위로 김정은을 위해 신설된 자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김정일의 와병 이후 김정은 체제를 준비하는 첫 단추였다. 이로써 후계자 김정은의 공식적인 대외활동이 시작되었고, 후계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여러 법

05□□□_□□□□□□16□ 14. 2. 10. □□ 3:21 Page 106

적·제도적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김정은의 빠른 권력승계작업의 원인으로는 김정일의 건강악화를 비롯하여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받았을 때보다 북한 내의 경제사정과 대외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 후 같은 달 30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 본격적인 김정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후계자 자리를 지키며 권력승계작업을 통해 50대가 되어서야 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일에 비하여 20대의 어린 나이, 그리고 3년이 채 안 되는 권력승계작업으로 지도자가 된 김정은에게는 법적·제도적 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들의 조치들도 필요했다. 그 중 하나가 '대중문화예술'의 지원이다.

북한은 2008년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을 시작으로, 김일성 시대에 유행했던 경희극 〈산울림〉, 가극 〈홍루몽〉, 중국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 등의 작품을 재창작 및 공연함으로써 대외관계의 재구성을 하고, 고전을 통하여 이전 시기의 추억과 감성을 호출하였다.

2012년 이후 방송에서는, 새로운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2012년 7월, 첫선을 보인 모란봉악단 창단 시범공연은 반짝이 미니 원피스, 킬힐 등을 착용하고 파격적인 율동을 선보이는 단원들과, 〈톰과 제리〉 등의 만화영화의 주제가가 연주되는 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우, 백설공주의 난쟁이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였으며, 영화 〈록키〉의 주제가가 연주되며 화면에는 실베스터스탤론이 달리는 장면 등이 북한 전역에 방송되었다. 북한 방송에서의 선전대로 '혁명적'인 시도였다.

실제 북한의 문화예술은 정책과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화한다. 김정일

1 조찬래, 「김정은 세습체제의 구축과정과 변화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61집, 한국동북아학회, 2011;히라이 하사시(백계문 · 이용민 옮김), 『김정은 체제—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한울, 2012 참조.

05□□□_□□□□□□16□ 14. 2. 10. □□ 3:21 Page 107

의 건강 악화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의 북한 문화예술계에는 위와 같은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2] 이러한 북한의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형국은 '관제 예술'인 북한의 연극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북한의 연극은 1970년대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재탄생된 후, 〈성황당〉(1978), 〈혈분만국회〉(1984), 〈3인1당〉(1986), 〈딸에게서 온 편지〉(1987), 〈경축대회〉(1988)인 5대 혁명연극이 오늘날까지 꾸준히 공연 및 재평가되는 '유일한' 작품군이 되었다. 또한 영상기술과 영화문학 발전 등에 따라 연극계에서는 위의 5대 혁명연극에 버금가는 '대작'이 오랫동안 제작되지 않았다.[3] 북한 연극은 1970년대 '연극혁명' 이후 최대의 하락기를 겪는 듯 보였다. 그 가운데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탄생한 연극이 〈오늘을 추억하리〉이다.

2000년대 이후의 현역 극작가로는 『조선예술』, 『조선문학』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아도 20여 명에 이른다. 작품은 단막극 22편, 경희극 2편, 장막극 4편이 실렸다. 장막희곡은 2003년 「력사의 증견자」[4]가 3회에 걸쳐 연재된 이후 2011년 「오늘은 추억하리」[5]가 처음 게재되었으며, 2012년에는 희곡이 실리지 않았다. 이후 『조선예술』을 통해 발표된 단막희곡 2편[6]을 제외하면, 2013년 5월에는 경희극 「사랑」[7], 10월 현재에는 장막희곡 「새 세기의 봄」이 연재중이다.[8]

본고는 김정일의 사망 전 마지막 작품이자, 현 시기에 창작된 그 어느

2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15~23쪽 참조.
3 최근에는 경희극 〈산울림〉을 제외하고는, 집단체조 〈아리랑〉이 가장 주목받는 공연이었다.(박영정, 「경희극 〈산울림〉 열풍과 대고조 시대의 북한연극」, 『플랫폼』 제25집, 인천문화재단, 2011, 24~28쪽.)
4 최광일, 「력사의 증견자」, 『조선예술』 2003년 10~1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년 10~12월.
5 김홍기 · 서남준, 「오늘을 추억하리」, 『조선예술』 2011년 11~1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년 11~12월. 『조선문학』 2011년 11~12월호에도 동시에 실렸다.
6 리기창, 「무성하는 숲」, 『조선예술』 2013년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3월, 30~37쪽;김자경, 「달리는 못살아」, 『조선예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4월, 40~47쪽.
7 박호일 · 김경화, 「사랑」, 『조선예술』 2013년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5월.
8 강원철, 「새 세기의 봄(제1회)」, 『조선예술』 2013년 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10월.

05□□□_□□□□□□16□ 14. 2. 10. □□ 3:21 Page 108

작품보다도 높은 평가와 더불어 북한의 정치적 입장이 잘 드러나 있는 장막희곡 「오늘을 추억하리」와 2000년대 이후 『조선예술』에 발표된 유일한 경희극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실린 첫 번째 희곡인 경희극 「사랑」, 김정일 사망 이후 장막희곡으로는 유일하게 『조선예술』에 실린 「새 세기의 봄」(제1회)을 대상으로 연극계의 최근 동향과 그에 따른 북한의 정책적 함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남한에서의 북한이라는 특수한 공간, 더구나 공연을 전제로 쓰인 문학작품인 희곡의 연구는 여전히 제약되어있다. 북한 연극은 대부분 이미 창작된 희곡을 바탕으로 무대화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9] 북한 희곡 발표의 주매체인 『조선예술』에 실린 희곡을 중심으로 작품 분석을 진행하며, 부차적으로 공연을 참고한다.

2. 과거의 소환: 「오늘을 추억하리」

〈오늘을 추억하리〉[10]는 연극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상'을 수상한 김일성상계관작품이다. 2011년 7월 13일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관람한 평양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지방순회공연을 이어갔으며, 여러 번 TV녹화중계가 되었다.[11] 희곡 또한 이례적으로 『조선예술』과 『조선문학』에 동시에 실리기도 했다.

김정일은 〈오늘을 추억하리〉를 두고, "주체적연극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연극",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을 철학

9 박영정, 「1990년대 북한 희곡의 개관」, 『한국극예술연구』 제14집, 한국극예술학회, 2001, 191쪽.

10 이후 본고에서는 연극을 언급할 때에는 '〈〉'로 표기하며, 『조선예술』에 실린 희곡은 '「」'로 표기를 한다.

11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2011년 7월 13일 김정일 · 김정은이 관람한 첫 공연을 시작으로 17일부터는 평양공연을 시작했다. 같은 달 27일 전승절에는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 전역에 녹화 중계되었으며 이후 8월 함흥, 9월 강계, 량강도, 10월 원산 등 지방순회공연을 진행했다.

05□□□_□□□□□□16□ 14. 2. 10. □□ 3:21 Page 109

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명작중의 명작", "인간관계설정으로부터 극작술, 무대미술, 효과음악, 연기형상에 이르기까지 손색없는 작품",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걸작"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12]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연극[13]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에 맞춰 『조선예술』에는 2011년 10월부터 12월, 3개월의 동안 〈오늘을 추억하리〉 관련 글이 단순한 언급을 빼고도 16개나 실리며, 한 편의 연극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오늘을 추억하리」는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중후반을 배경으로 어느 산간마을 발전소 건설 과정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고 있다.

'고난의 행군'은 일상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지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담론으로서 '고난의 행군'은 실제 현장을 살아가는 주민과 관료들에게는 비참함의 현실이었다. 동시에 그 비참함의 시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과 관료들의 다양한 생존을 위한 행위들이 전개된 과정이기도 했다.[14] 「오늘을 추억하리」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식량 문제를 극의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극의 전개는 북한연극에서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전에 발표된 희곡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시·소설 등과 영화에서처럼 희곡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무대로 창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처해있던 경제난·식량난은 다루지 않았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찬양하거나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내용 등으로 극을 채우고 있으며, 간부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와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등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공식적인 고

12 『조선중앙년감』 201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2, 300쪽.
13 「(사설)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올해를 시대의 명작으로 빛내이자」, 『문학신문』, 2012년 1월 14일.
14 김종욱, 「북한 관료의 일상과 체제변화:'지배공간'의 변형과 기억의 실천」,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 2009, 북한대학원대학교, 11쪽.

05□□□_□□□□□□16□ 14. 2. 10. □□ 3:21 Page 110

난의 행군 시기로 분류되는 1997년 『조선예술』에 발표된 희곡들이다.

경 준: 지금 일부 일군들은 좋은 옷이나 입고 차나 타고 다니면서 자기 뼈심을 들여 로동자들과 함께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다가도 평가 받는 기회가 생기면 로동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성과들을 자기의 공로처럼 여기면서 아무 거리낌없이 제가슴에 훈장을 먼저 달자고 하는가 하면 한참 출세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는 일밖에 모르던 성실한 사람도 은퇴할 나이가 되면 체면도 생각지 않고 헤덤비며 집을 짓는다 재산을 불쿤다 분주탕을 피우는데 우리의 선전비서동지는 제발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 일군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는데 어제 보니 같고같은 사람이였다고 로동자들이 얼마나 실망해하고 섭섭해하겠습니까. 당의 뜻대로만 일하는 당일군이 되라고 배워주고 이끌어준 비서동지를 전 지금껏 존경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속에 시작도 끝도 변함이 없었던 어머니당일군의 참모습으로 남아있을줄 믿었던 비서동진데 이젠…[15]

국 장: (…) 동무들은 전화기나 지키구 앉아선 《무엇이 없소》, 《무엇이 부족하오》하구 내라는 소리나 하고있지만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을 들여다볼줄은 모른단말입니다, 지금 우리 일군들이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견인기문제, 객화차문제, 철길문제 어느 하나도 똑똑히 풀지못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구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동무들! (…)[16]

윤태종의 단막희곡 「보람」과 김영일의 「그가 울린 기적소리」에서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배경으로 극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사를 통해 부패한

15 윤태종, 「보람」, 『조선예술』 1997년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7년 5월, 62쪽.
16 김영일, 「그가 울린 기적소리」, 『조선예술』 1997년 6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7년 6월, 63쪽.

05□□□_□□□□□□16□ 14. 2. 10. □□ 3:21 Page 111

간부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윤태종은 「보람」을 발표한 다음해 희곡 「복감자」를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물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의 정도가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1990년대 『조선예술』에는 경희극 「발동소리 울린다」(백상균, 『조선예술』 1997. 3), 단막희곡 「위대한 자욱」(박정남, 『조선예술』 1997. 4), 「영원한 불길」(김형길, 『조선예술』 1997. 12), 경희극 「편지」(박호일, 『조선예술』 1999. 9), 경희극 「동지」(박호일, 1999. 10) 등 많은 작품에서 '고난의 행군'을 다루고 있었지만 고통스러웠던 '진짜' 모습은 외면하고 '자력갱생'만을 외쳤다.

이런 작품의 경향은 고난의 행군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2000년대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예술』, 『조선문학』에 발표된 2000년대 초 희곡들은 배경과 내용으로 동유럽[17], 일제강점기[18] 이후 토지개혁[19], '조국해방전쟁시기'[20] 등을 다루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이상적인 선군시대의 모습[21], 6·15선언과 비전향장기수[22] 등을 다루었고, 2007년 후반부터는 자력갱생[23], 혁명적군인정신[24], 강성대국건설과 인민생활문제[25]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2011년 창작된 「오늘을 추억하리」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통해 2007년 후반부터 언급하던 자력갱생, 혁명적군인정신, 강성대국건설, 인민생활문제를 모두 소환하고 있다. 또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1990년대 북한의 위기 즉, 1990년대 연이은 사회

17 조명철, 「태양찬가」, 『조선예술』 2001년 4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1년 4월.
18 최광일, 「력사의 증견자」, 『조선예술』 2003년 10~1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년 10~12월.
19 라성덕, 「한드레벌의 새 전설」, 『조선예술』 2001년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1년 5월.
20 김창남, 「시간표」, 『조선예술』 2003년 7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년 7월; 리송일, 「특수위수구역」, 『조선예술』 2004년 4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년 4월.
21 리기창, 「기쁨」, 『조선예술』 2007년 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년 1월; 리기창, 「높은 령마루」, 『조선예술』 2007년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년 5월.
22 리장건, 「은반지」, 『조선예술』 2007년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년 3월.
23 리장건, 「보란듯이」, 『조선예술』 2008년 7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년 7월; 리명선, 「삼수의 파도소리」, 『조선예술』 2009년 6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9년 6월.
24 김성희, 「교정의 하루」, 『조선예술』 2007년 9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년 9월; 리장건, 「보란듯이」, 『조선예술』 2008년 7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년 7월.
25 리명선, 「삼수의 파도소리」, 『조선예술』 2009년 6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9년 6월.

05□□□_□□□□□□16□ 14. 2. 10. □□ 3:21 Page 112

주의 붕괴와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김일성의 사망인 '대국상', 몇 해에 걸친 자연재해 등과 그로 인한 가난, 굶주림, 병, 죽음 등이 널린 북한 내부의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추억하리」의 고난의 행군은 이전 시기 창작된 희곡들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오늘을 추억하리」는 50대 여성인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산옥과 그의 딸 송희, 발전소건설 시공지도원 석태, 광천 부위원장 등이 중심인물로 극을 이끌어간다.

등장인물들이 행동과 대사는 고난의 행군 당시의 식량난의 심각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산옥의 딸인 중학생 송희는 첫 등장에서부터 굶주림에 휘청거린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송희는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친구와 산을 헤매며 산나물을 찾으러 다닌다.

발전소 건설장도 송희의 사정과 다를 바가 없다. 강냉이조차 배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석탄으로 만든 떡을 먹고, 땔감으로 나무를 베어낸 산은 벌거숭이가 된지 오래다.

「오늘을 추억하리」는 서장의 설화와 무대부터 이러한 굶주림과 그로 인한 죽음, 자연재해 등을 강조한다.[26]

설화: 생각하면 그 시절이 너무도 참혹해
돌이켜보기조차 괴로운 추억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옹이져있는
고난의 행군!…

△서서히 막이 열린다.

26 〈오늘을 추억하리〉 또한 1970년대부터 추진된 '연극혁명' 이후의 '〈성황당〉식 연극'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다장면 구성 형식, 흐름식 입체무대 미술, 방창과 설화 등을 사용하고 있다. '〈성황당〉식' 연극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박영정, 「북한연극의 공연방식과 미학」, 『한국극예술연구』제13집, 한국극예술학회, 2001을 참조.

05□□□_□□□□□□16□ 14. 2. 10. □□ 3:21 Page 113

온 발전소건설장을 삼켜버릴듯 한 눈보라, 눈보라…
질통과 흙마대를 멘 남녀건설자들이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허기져 쓰러지기도 하고 기승을 부리는 눈보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기에 설화가 계속된다.
설화: 행복했던 지난날이 눈물겹게 그리울수록
시련이 더 쓰리고 아팠던 그 시절
인간이 겪을수 있는 최악의 역경에서
풀뿌리를 깨물며 죽음과 싸운
고난의 그 피자욱
우리 작은 산간군에도 찍혀져있다.…

송희는 발전소의 식량을 먹지 못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엄마 산옥에게 혼이 난다. 쌀 주머니 또한 석태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굶주림에 죽게 된다. 송희의 죽음에는, 극한의 굶주림과 발전소 일 때문에 송희를 돌보지 못한 엄마 산옥의 책임이 존재한다. 발전소 건설장 사람들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다. 발전소건설 시공지도원인 석태 또한 영양실조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며, 마른 몸을 감추기 위해 배띠를 두르고 다닌다. 굶주리던 마을 사람들은 칡뿌리로 국수를 만들어 먹기 위해 연구하는 등 대용식품 개발에 온 힘을 다한다. 산옥은 딸 송희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있을 수 없다. 발전소건설에 걸린 모든 문제에서 '해결사'처럼 등장해야하기 때문이다. 참나무를 깎아서 레루를 대신하고, 칡뿌리로 대용식품을 만들고, 전기를 켠 채로 철탑을 옮기는 문제 등 극의 사건 전면에는 산옥이 존재한다. 이러한 외적 어려움 속에 산옥에게는 더 큰 난관이 등장한다. 철탑이전공사가 어려워지자 다른 방법을 찾는 간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라디움온천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발전소공사의 지속이 어렵다는 실태보고서까지 작성한 광천부위원장이 중심이다. 이후 광천부위원장은 산옥이 40년 전에 혜

05□□□_□□□□□□16□ 14. 2. 10. □□ 3:21 Page 114

어졌던 남동생으로 다시 재회하게 된다. 광천위원장으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이 아닌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제대군인이며 건설기술자로 외국에 다녀온 아들 세철의 이야기와 '장군님 일화' 등을 통해 반성한다. 회의 끝에는 이전의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며 다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저 붉은기를 완공된 언제우에 펄펄 휘날"릴 날을 위해 다시 힘을 모은다.

익 준: 문제는 우리 일군들부터가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어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가 하는거요. 30년대 고난의 행군을 좀 생각해보오. 닷새면 가닿을 길을 100여일간이나 가야 했으니 난 관인들 오죽 많았겠소. 모진 추위와 굶주림, 놈들의 검질긴 추격과 집요한 회유, 그보다 더 어려운 투쟁은 자기자신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이였소. 오늘도 사정은 마찬가지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오.[27]

이후 끝까지 발전소건설을 포기하고 관광지사업을 준비하던 광천을 찾아간 산옥은 자신과 광천의 관계를 밝히고 분노를 쏟아낸다.

마지막 7장에서는 갑자기 내린 비로 철탑의 고압선이 물에 잠기려고 하는 위기가 찾아온다. 언제를 폭파해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견 사이에 산옥은 어떻게든 철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정신을 차린 광천은 누이인 산옥 대신하여 무넘이구간을 밀기 위해 불도젤을 타고 목숨을 건 작업을 자처한다. 그때 인민군대가 등장하고, 언제의 무넘이구간을 낮추며 동시에 철탑을 들어올리기로 한다. 마을 사람들과 인민군대는 함께 힘을 합쳐 '혁명적군인정신' 위기상황을 돌파하며 극이 마무리된다.

「오늘을 추억하리」의 내용은 고난의 행군의 실제 모습을 극 전반에 걸쳐 보여주었으나, '장군님'을 매개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는 마무

27 「오늘을 추억하리」, 74쪽.

05□□□_□□□□□□16□ 14. 2. 10. □□ 3:21 Page 115

리는 이전 극들과 같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평가는 2011년 김정일이 집권하던 때와 김정은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 차이를 보인다.

주인공의 딸 송희의 마지막 장면처리문제를 놓고서도 심각한 창작적론쟁이 있었다.

송희의 운명을 꼭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가. 전형화의 원칙에 맞는가 등 창작실현장에서는 상반되는 주장들이 때없이 엇갈리고있었다. 낡은 볼거리에 작품흐름을 맞추려는 형식주의, 경험주의적인 경향도 없지 않았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창조과정에 미학실천상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데 주저하지말고 고난의 행군시기를 있는 그대로 펼쳐놓을데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후대들에게 정확히, 똑똑히 말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어떤 도식과 틀에 메이지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자. 그래야 명작이 된다.

주옥같은 명대사들과 창작가들의 대담한 시도가 엿보이는 심각한 대립장면들, 상급의 결론이요 뭐요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드는 일군들의 그릇된 일본새를 까밝히는 장면들은 이런 속에 합성되였다.

새것의 탄생은 언제나 진통을 동반한다. 그 진통이 두려워 창작에서 도식을 고집하고 경험주의에만 매달린다면 언제가도 새것을 창조할수 없다.

대담하게 사색하고 용감하게 창조하라.

현실을 미화분식할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작품에 담으라.

진실은 책상우에 있는것이 아니라 들끓는 인민대중의 투쟁속에 있다.[28]

위는 〈오늘을 추억하리〉가 첫 공연된 2011년 7월의 『로동신문』 기사이다. 2011년 『로동신문』에는 주인공 딸 송희의 죽음 처리 문제의 창작적 논

28 본사기자, 「시대와 명작」, 『로동신문』, 2011년 7월 20일.

05□□□_□□□□□□16□ 14. 2. 10. □□ 3:21 Page 116

쟁에 대한 내용을 여러번 실었다. 그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은 "장군님의 말씀"인데,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있는 그대로 펼쳐 놓아야" 되며, "현실을 미화분식할것이 아니라" "진실"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극에서의 '오늘'인 고난의 행군은 과거 혁명 1세대, 전쟁체험 2세대, 그리고 '새 세대'로 불리는 3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경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넓다. 또한 현시대에도 고민하고 있는 식량, 전력 등 '인민생활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위기의 시기였으며, 이후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제공한 시기이다.[29]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서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항일유격대 시절 위기처럼 극복을 상징하는 '고난의 행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30] 위기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극복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31] 〈오늘의 추억하리〉 관련된 2011년의 기사들은 "시대적 명작"을 강조하거나, 송희와 산옥 등 주인공들을 본받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각 지역의 사람들이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들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지상연단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김정일 사망 전까지 계속되었다.[32]

그러나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2013년 1월에는 이전과 성격이 다른 기사가 실렸다.

---

29 "현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다. 오늘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군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검증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문학신문』 2012년 1월 7일.)

30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반영한 작품으로서 고난의 행군에 대한 추억은 슬픔의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추억이라는것을 제목에 암시하여주고있다."(김명진, 「제목을 극적흥미가 있게 달자」, 『조선예술』 2013년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3월, 32쪽.)

31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77쪽.

32 『로동신문』에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들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지상연단을 게재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2011년 9월 3일, 9월 16일, 9월 22일, 10월 6일, 10월 20일, 11월 11일, 12월 5일자 등에 걸쳐 같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김정일 사망 전 지상연단은 계속되었다.

05□□□_□□□□□□16□ 14. 2. 10. □□ 3:21 Page 117

지난해 12월 19일 하늘땅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은 비보에 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오늘을 추억하리》의 대사들이 떠올랐다.

《우리 엄만 텔레비죤에서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뵈올 때가 제일 좋다고 했어.》

《맞아. 아버지장군님을 뵈오면 배 안 고파.》

《그래서 우리 엄만 하루빨리 발전소가 되여야 한다고 했어. 전기불이 와야 텔레비죤으로 매일 아버지장군님을 뵈올수 있대.》

소박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는 대사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의 전부였다.

(…)

한 민족을 질식시키려고 제국주의자들이 떼무리로 달려들던 그때 추억하기조차 눈물에 겨운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날을 이으시며 전선길을 달리고 또 달리신 위대한 장군님, 적진이 눈앞에 보이는 판문점과 초도에도 가시고 오성산과 철령에도 수없이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이 있어 내 조국은 더 굳건히 지켜지고 승승장구할수 있었다.

어찌 그뿐이던가.

눈보라 휘몰아치는 동지섣달에도, 뙤약볕이 내려쪼이는 삼복철에도 현지지도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무수한 기적의 창조물들과 더불어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

우리 인민은 지난 1월 2일부《로동신문》을 솟구치는 격정과 뜨거운 환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나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새해의 첫 자욱을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05□□□_□□□□□□16□ 14. 2. 10. □□ 3:21 Page 118

제105땅크사단에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렇게 찾으시여 병사들의 싸움준비와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헤아려주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모습에서 인민은 그토록 뵙고싶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다시 뵈왔다.

그렇다.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꼭같으신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장군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웨치고싶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는 천만군민의 소망과 더불어 오늘도 계속되고있다고.[33]

북한은 김일성을 '항일유격대' 시절을 통해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무장투쟁을 하여 나라를 일제에서 해방한 민족의 영웅"[34]의 이미지와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한국전쟁 중에도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병간호를 하는 자상한 어버이의 이미지로 강조하였다.

「오늘을 추억하리」에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유사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을 통해 인민들을 위해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날을 이으시며 전선길을 달"린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 덕분에 현재의 경제·산업의 발전이 될 수 있었음을 칭송하며 인민의 어버이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이라는 인물을 추억하면서 '김정일'은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꼭같으신" 김정은과 연결시키고 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정권 승계 과정에서 김일성의 이미지를 활용한 바 있다. 김정은 또한 아직은 부족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보충하기 위해 김정일의 이미지를 적극 활동하고 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짧은 권력승계과정

33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는 계속된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5일.
34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324쪽.

05□□□_□□□□□□16□ 14. 2. 10. □□ 3:21 Page 119

〔그림 1〕「오늘을 추억하리」 첫 공연 때 김정일과 김정은의 사진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되었다.

으로 내세울 뚜렷한 업적이 적기 때문에 "풍모" 등의 외적 요인을 언급하며 혈통을 강조하는 등 권력승계의 정당성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확보에 활용하고 있다.

3. 새 지도자로의 접속: 「사랑」

「사랑」은 서장과 종장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된 경희극으로, 김일성상계관인 박호일과 김경화의 공동작이다. 극은 대성산기슭에 자리잡은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을 배경으로, 인민군 대대장 김국철과 현장설계원 홍순애, 순애의 삼촌이자 노동부원인 하지만, 애인 사이인 광남과 옥실, 그들의 부모인 주로인과 리씨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서장에서는 건설장에 국철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나고 책임자이자 순애의 삼촌인 지만이 국철에게 총각이 아니라는 자필확인서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국철은 자기가 마실 물까지 가뭄으로 말라버린 나무에게 주는 열렬 일꾼으로, 소문은 중매가 많이 들어오자 대대장으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다. 순애는 현장설계원으로, 국철과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간다.

경희극의 특징인 '웃음'의 중심에는 민속공원에서 무당역을 맡은 옥실

05□□□_□□□□□□16□ 14. 2. 10. □□ 3:21 Page 120

과 그의 어머니 리씨, 구룡사 중역을 맡은 광남과 그의 아버지 주로인이 있다. 집안끼리 결혼 약속을 한 옥실과 광남의 부모들은 그들을 보기위해 하반신마비 영예군인과 그의 부인으로 변장하고 몰래 건설장으로 들어가 천연한 행동으로 웃음을 유발하며, 민속공원 내부의 구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경희극 「사랑」은 2012년 9월 준공된 '평양민속공원' 건설장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하였다. 극의 배경이 되는 '평양민속공원'은 2008년 12월 김정일의 지시로 2012년 강성국가 진입에 맞춰 추진된 사업으로, 남한의 민속촌 또는 역사박물관에 준하는 유원지이다.

극의 도입부에 무대 상단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2012년 1월 11일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리고, 건설장의 군인들이 함께 김정은에게 보여줄 풀피리합주 연습을 한다. 실제 김정은이 같은 날 현지지도를 하였다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이날 방문의 마지막에는 건설장 군인들이 풀피리 합창을 김정은이 관람하기도 했다. 이날 현지지도에서 내려진 김정은의 지침으로 평양민속공원 건설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이후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랑」은 이와 같이 민속공원 건설장의 배경으로 1월 11일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있던 때부터 같은 해 9월 7일 김정은이 다시 방문한 준공식 때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극사건의 중심은 민속공원에 만든 금강사탑 모형의 오류로 인한 대립이다. 역사학자가 고증의 오류로 금강사탑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지만, 순애는 다 만들어버린 탑을 바꾸면 고생할 건설장 사람들을 생각해 비밀로 해주길 원한다. 제3장에서는 역사학자가 금강사탑 모형이 잘못 만들어졌음을 털어놓자 순애는 "옥에 티나 같은 작은 결함"이라고 말한다. 그런 순애에게 국철은 "우리 군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나무란다. 국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곡 력사주의적원칙"을 지켜야 한다

05□□□_□□□□□□16□ 14. 2. 10. □□ 3:21 Page 121

고 말하고 재공사가 결정된다. 제4장에서는 태풍으로 금강사탑 모형의 들보가 무너질 위기의 상황이 온다. 위험한 상황에 국철과 결사대원들이 나서고, 순애는 삼촌에게 국철이 총각임을 밝혀 오해선과 위기가 해결된다. 장의 마지막에 국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의 심장마다에 안겨주신 김정일애국주의는 사랑중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라며 극의 메시지를 대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준공식에 참여한 김정은의 사진이 스크린에 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배경막에 김정은의 "명제"가 자막 처리된다.

김정은 시대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호에 맞춰 문화사업과 생활관련시설 확충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은 후계자 시절부터 개선청년공원 시찰·관리(2010. 8)를 시작, 지도자가 된 직후에는 릉라인민유원지를 완공(2012. 7)했고, 이어 「사랑」 배경인 평양민속공원(2012. 9), 대성산 종합병원(2013. 3), 해당화관(2013. 4)과 올 가을에는 문수물놀이장을 개장하였고, 현재는 마식령스키장 공사가 막바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린시절확충에 힘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대수 100만대 돌파로 상징되는 '통신혁명', 대형 슈퍼마켓과 전문상점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유통혁명' 등의 정책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3세대가 변화된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려는 새로운 시도인 셈이다. 더구나 1990년대 후반 북한의 3~4세대들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경제난을 경험한 만큼 경제부흥에 대한 열망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5]

김정은 시대에는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김정일애국주의'를 끝없이 강조한다.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당사업을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시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야겠다며,

35 정창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 전망」, 『EAI 이슈브리핑』 32집, 동아시아연구원, 2012. 6, 6쪽.

05□□□_□□□□□□16□ 14. 2. 10. □□ 3:21 Page 122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요구했다.[36] 이 신년사의 내용은 「사랑」에서 자막으로 처리되는 마지막 장면과도 일치한다.[37]

「사랑」의 배경인 '평양민속공원'은 김정일이 시작해서 김정은이 완성한 장소이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해 "수령형상문학예술", "수령영생문학예술"을 주선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문학예술에서의 '평양민속공원'은 김정은을 김정일과 연결시켜 주는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가 된다.[38] 또한 「사랑」에는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인 '청년', '청춘'들의 사랑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젊은' 이미지를 희곡에 반영시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연결하여 다시 '혁명적군인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평양민속공원'이라는 김정일과 김정은을 연결시켜주는 공간을 무대로 희곡의 많은 부분을 공원 내부 소개로 할애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친근한' 지도자로 인식시키고 있다.

「사랑」의 종장에는 실제 평양민속공원의 준공식에서의 김정은의 말을 국철의 대사를 통해 김정일을 언급한다.

> 국 철: 여러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정말 명당자리에 터전을 잡아주셨다고,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여기에… 장군님을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39]

---

36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37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일고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사랑」, 80쪽.)

38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나가야 합니다.》" (리현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선군시대 주체예술창조의 강령적지침」, 『조선예술』2012년 12월,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9쪽.)

39 「사랑」, 79쪽.

05□□□_□□□□□□16□ 14. 2. 10. □□ 3:21 Page 123

집권 초기 단계의 김정은에게는 자신의 업적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선대이며 오랜 기간 집권한 김정일의 위업을 계승하여 위업을 달성하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경희극 「사랑」에서 또한 김정일의 우상화를 통해 김정은이 김정일의 업적을 이어간다는 계승자 이미지의 형성하고 있다.

4. 업적 만들기 프로젝트: 「새 세기의 봄」

2013년 현재 『조선예술』에는 김정은 시대의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가을까지를 배경으로 북한의 CNC 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강원철의 장막희곡 「새 세기의 봄」이 연재중이다.[40] 「새 세기의 봄」(제1회)은 앞선 살펴본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1990년대 중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의 고달픔이 아닌 'CNC' 기술 발전이 부흥하는 시기로 보고 극을 전개한다.

김정일은 지속적으로 경제·과학기술을 강조해왔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하고 경제발전의 바탕에는 과학기술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과학기술은 일체되어야 하며, 인재를 육성할 교육분야 또한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

「새 세기의 봄」은 김정은 시대의 첫 장막극으로 1990년대 중엽 봄 명성기계공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직 연재중으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으나, 본고에서 함께 다루는 이유는 김정일이 등장하는 첫 번째 희곡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의 작품들에서도 '장군님' 김정일은 대부분 등장하였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의 대사나 사진, 자막 등을 통해 간접적인 등장만 하였다. 그러나 「새 세기의 봄」(제1회)에서 김정일은 직접

40 「새 세기의 봄」은 2013년 11월 현재 국내에서 열람 가능한 『조선예술』 2013년 10호에 제1회가 실린 상태이다.

05□□□_□□□□□□16□ 14. 2. 10. □□ 3:21 Page 124

무대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극의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CNC 기술 개발을 진두지휘한다.

△눈보라소리가 세차게 울린다.

장군님: (엄숙하게) 난 결심했소. CNC를 합시다! 이것만이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나라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돈을 모두 현대화에 돌리려고 합니다.

(…)

장군님: (격동된 심정을 누르시며) 솔직히 말하면 얼마 안되는 자금을 나라의 현대화에 돌리자고 생각하고 문건에 수표하자니 손이 다 떨렸습니다. 당장 굶어쓰러지고있는 인민들을… 생각할 때… 정말 눈에서—눈물이 아니라—피가 흘렀습니다, 피가!

모 두: 장군님!

장군님: 허지만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해 나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후날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였는가를 우리 인민은 꼭 리해하게 될겁니다, 꼭!

모 두: 장군님!

장군님: (진영이와 창해를 보시며) 동무들은 이 귀중한 자금으로 우리의 CNC기계를 꼭 만들어야겠소.[41]

극은 '명하'라는 이름을 붙인 CNC기계의 공장에서 시작된다. 고난의 행군 시기, 명하기계공장에서 일하는 진영은 18살 때 이론서 쓸 정도로

41 「새 세기의 봄」(제1회), 79쪽.

05□□□_□□□□□□16□ 14. 2. 10. □□ 3:21 Page 125

명석한 CNC기계개발조 연구원이다. 진영은 CNC기계 개발에 쓸 자금을 일반기계생산에 돌려 식량문제부터 풀자는 학민 등과 대립하는 등 CNC개발을 위해 힘쓴다.

다른 인물로는 어릴적 폭격에 온 가족을 잃은 후 작은 키 때문에 군대도 못가고 선반공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 노력영웅 광호가 등장한다. 그의 회상 속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등장한다.

광 호: 그럼, 우리 수령님께서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고 여기에 기계공장 터전을 잡아주시였네. 그때는 미국놈비행기들이 하늘에 매일같이 떠돌아두 우리는 한쪽으로 굴을 뚫고 한쪽으로는 선반을 돌렸네. 그게 전후복구건설때 큰 은을 냈지. 그것만 보아도 우리 수령님은 정말 하늘이 낸 위인이시야.[42]

광호가 김일성이 '꼬마선반공'이라고 불러주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는 사이, 광호는 공장을 방문한 김정일과 재회한다. 첫 등장에서 김정일은 지난날의 광호를 기억해주며 자상하게 그의 몸을 걱정해주고, 그의 손자 태진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경희극 「사랑」에서 평양민속공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면, 「새 세기의 봄」(제1회)에는 CNC에 대한 설명과 역사, 중요성 등을 극 전반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장군님: 좋아, 아주 좋아. 우리 조선사람들이 총명해. (진영에게) 동무는 어떻게 돼서 CNC기계를 만들게 됐소?

부부장: 학생때 3대혁명전시관에 갔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강사가 수령

42 앞의 글, 64쪽.

05□□□_□□□□□□16□ 14. 2. 10. □□ 3:21 Page 126

님과 장군님께서 전시관에 오시여 다른 나라에서 콤퓨터에 의한 수자조종공작기계를 만드는데 우리 나라에도 그런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다는 말씀을 전해듣고 그때부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43]

장군님: 허지만 이런 식으로는 동무네도 얼마버티지 못할거요. 그래 공장설비는 언제때거요?

학　민: 대체로 70년대 설비들입니다.

장군님: 마누팍뚜라요. CNC를 해야 합니다.

학　민: (어리둥절하여) 예?[44]

또한 CNC의 뜻과 원리부터 장점 등이 모두 김정일의 대사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CNC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그 의견을 들은 김정일이 고민하며 다시 길을 떠난 사이 일반기계만을 생산해왔던 공장이 물품을 수출하지 못해 망하게 되고, 광호 또한 일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김정일은 광호의 식구들을 위로하고 공장을 살릴 방도를 찾기위해 수백리길을 다시 되돌아간다. 찾아간 광호의 집에서 칡뿌리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아이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혁명학원에 보내 훌륭한 과학인재로 키워달라 명한다.

태　진: (장군님께 안기며) 아버지! 흑흑.

장군님: 그래그래. 내가 이제부터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야. 울지 말아라.[45]

극에서 어린 태진을 대하는 김정일의 모습은 김정일 시대에 그리던 김

43 앞의 글, 66쪽.
44 위의 글, 67쪽.
45 위의 글, 77쪽.

05□□□_□□□□□□16□ 14. 2. 10. □□ 3:21 Page 127

일성과 닮아 있다. 김정일은 눈보라가 치는 산을 넘어 다니며 인민의 생활을 찾아다니고, 얼어붙은 줴기밥을 일군들과 나눠먹고 찬 바닥에서 얇은 솜옷을 입고 쪽잠을 청한다. 김정일 시대에 김일성을 인민의 어버이로 묘사하고 그의 덕성과 온정을 높이 칭송하여 인민에게 충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투쟁으로 이어간다는 '후계자의 이미지' 또한 김정은에게 승계되고 있는 것이다.

장군님: (엄숙하게) 난 결심했소. CNC를 합시다! 이것만이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나라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돈을 모두 현대화에 돌리려고 합니다.

모 두: 예?

(…)

장군님: 허지만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해 나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후날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였는가를 우리 인민은 꼭 리해하게 될겁니다. 꼭![46]

장군님: 나는 지식경제시대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려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정을 믿고 남들이 수십년을 걸어간 길을 단숨에 가자는겁니다.…우리 대에는 좀 힘들더라도 CNC를 해놓으면 이제 여기 태진이를 비롯한 우리 후대들이 그 덕을 보게 될 것이요.[47]

46 앞의 글, 79쪽.
47 위의 글, 80쪽.

05□□□_□□□□□□16□ 14. 2. 10. □□ 3:21 Page 128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한 이후 김정은의 '업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후계자로서의 지위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8] 2010년 9월 당 대표자 회의에서 후계를 공식화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적' 만들기 중 대표적인 예가 'CNC' 기술 개발이다.[49] 북한에서 영어 약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 'CNC'는 영어 약자 그대로 쓰이며, 슬로건에도 자주 등장한다. 북한에서 'CNC'라는 단어는 김정은 시대 전에도 사용되었으나 사용빈도가 높아진 것은 2009년 여름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로동신문』에는 CNC에 관련된 기사가 대규모로 실렸는데, 그 내용이 「새 세기의 봄」(제1회)의 바탕이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라는 정론 형식의 이 글은 북한의 CNC개발에 대한 어제, 오늘, 내일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격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정일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CNC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찬양한다.

> 누구도 몰랐다. 우리 장군님 피눈물의 언덕에서 싹틔우시고 풀뿌리를 씹어 삼키는 눈보라길에서 소리없이 마련해오신 위대한 승리였다. (…) 1980년대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로보트를 만들어내도록 하시고 세계를 굽어보는 안목과 배짱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의 길에서도 CNC의 성공을 얼마나 기다리고계시는가를 첨단의 개척자들은 알고있었다. (…)[50]

48 〈마이니치신문〉이 2009년 9월 8일 보도한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 가운데 실적으로서 거론된 구체적인 예가 있다. ①착상이 기발한 작전 지도의 작성, ②포병 부문에서 조직적인 수완, ③'광명성 2호' 발사 현지 시찰, ④2009년 4월 태양절의 경축 축포야회(불꽃대회), ⑤인공위성 자료와 위성항법시스템(GPS) 수신기 좌표를 이용한 지도 작성, ⑥비범한 사격술 등이다.(히라이 히사시(백계문・이용빈 옮김), 『김정은 체제-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한울, 2012, 305~308쪽.)

49 이와 관련된 학위논문으로 라훈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CNC 선전선동」,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가 있다. 라훈일은 북한의 'CNC' 선동과 '김정은 후계체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CNC 선전선동이 김정은이 자신의 후계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인 '권력승계 완료'와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50 「최첨단을 돌파하라」, 『로동신문』 2009년 8월 11일.

05□□□_□□□□□□16□ 14. 2. 10. □□ 3:21 Page 129

201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이 같은 김정은 업적들과 함께 'CNC' 기술을 강조하고 있으며,[51] 2010년 8월부터 평양의 5·1경기장에서 시작된 매스 게임과 예술공연 〈아리랑〉에서는 카드 섹션으로 "CNC 주체공업의 위력"이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52]

「새 세기의 봄」(제1회)에서는 대사를 통해 북한에서 흔히 쓰지 않는 영어 약자와 단어를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다. 또한 영어를 유창하게 쓰는 선반공 봉렬을 동료는 부럽게 바라보는 장면 등은, 인민에게 생소한 용어들을 사용하며, '낡은' 시대를 넘어서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중심에 'CNC'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작품들에서처럼 'CNC'가 김정일-김정은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로의 등장하며, 김정일의 시대부터 CNC는 준비되어 왔으며, CNC 시대의 완성에는 김정은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두 편의 희곡에서처럼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대인 김정일의 우상화와 더불어 충효과 덕성으로 그의 업적을 이어나가는 김정은의 후계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예술인 연극에서 또한 김정일의 업적을 더 높이 포장하는 작업과 그 업적을 김정은이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1월 『조선문학』에는 이와 같은 문화예술분야의 작업 창조에 관한 글이 실렸다.

---

51 "지난해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우리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장쾌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력사적사변이였다. 성강에서 주체철생산체계완성의 만세소리가 터져오르고 우리의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한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대승리이며 우리의 무궁무진한 경제기술적잠재력을 시위한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경사이다. 뜻깊은 태양절과 5.1절, 10월의 명절에 펼쳐진 축포야회들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의 리상과 포부가 얼마나 원대하며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미래가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2010년 1월 1일.)

52 "2002년부터 매년 행해지는 있는 〈아리랑〉에서 'CNC'의 슬로건이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CNC가 김정은의 업적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업적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견해가 확산 되었다."(히라이 히사시(백계문・이용빈 옮김), 『김정은 체제-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한울, 2012, 312쪽.)

05□□□_□□□□□□16□ 14. 2. 10. □□ 3:21 Page 130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예술창조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수령영생위업을 위한 예술창조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를 깊이 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높이 칭송하는것이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예술창조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사무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숭고한 화폭으로 뜨겁게 형상하는것이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예술창조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으로 펼쳐가는것이다.

쌓으신 업적이 위대하고 바치신 사랑과 헌신이 위대하기에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작품들은 모두 시대의 명작으로 빛나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53]

김정일 시대에는 김일성에게 태양·불멸·영생 등의 표현으로 대체불가한 절대자의 이미지와 항일혁명투쟁시기를 이용한 우상화를 꾸준히 진행하며, 김정일은 문화예술부문의 영도자와 충효의 후계자 이미지를 부각

53 김태성,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조선예술』 2013년 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1월, 11~12쪽.

05□□□_□□□□□□16□ 14. 2. 10. □□ 3:21 Page 131

시켰다. 김정일에 비하여 짧고 갑작스러운 권력승계과정을 겪은 김정은에게 이러한 지도자 이미지 구축과 우상화 작업은 이전 시기보다 더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김정일이 직접 등장한 희곡은 아직은 생소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여 권력승계의 정통성 획득의 기반을 굳혀 갈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2011년 이후 『조선예술』에 실린 희곡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연극계의 동향과 그에 따른 북한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54]

본고에서 살펴본 「오늘을 추억하리」, 「사랑」, 「새 세기의 봄」(제1회)을 통해 북한 연극계가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희곡을 창조·평가하고 있으며, 작품 내부에서 선대인 김정일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우상화하는 작업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경향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집권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현재의 김정은에게는 부족한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기보다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위업을 강조하고 자신은 그 위업을 계승하고 달성하는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희곡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의 김정일의 모습, 김정일이 시작한 평양민속공원과 CNC와 최첨단과학기술의 완성에 관한 내용과 '김정일애국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강조는 지도자 이미지를 획득해 후계

54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5일.

05□□□_□□□□□□16□ 14. 2. 10. □□ 3:21 Page 132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김정은 시대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연극에서 나타나는 김정은 시대의 정책적 의도는 앞으로도 연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05□□□_□□□□□□16□ 14. 2. 10. □□ 3:21 Page 133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홍기·서남준, 「오늘을 추억하리」, 『조선예술』 2011년 11, 1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년 11, 12월.

박호일·김경화, 「사랑」, 『조선예술』 2013년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5월.

강원철, 「새 세기의 봄」(제1회), 『조선예술』 2013년 10호,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10월.

『조선예술』, 『조선문학』, 『로동신문』, 『문학신문』

2. 단행본

『조선중앙년감』 2012, 조선중앙통신사, 201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히라이 하사시(백계문・이용민 옮김), 『김정은 체제—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한울, 2012.

3. 논문

김종욱, 「북한 관료의 일상과 체제변화:'지배공간'의 변형과 기억의 실천」,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라훈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CNC 선전선동」,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영정, 「1990년대 북한 희곡의 개관」, 『한국극예술연구』 제14집, 한국극예술학회, 2001.

_____, 「경희극 〈산울림〉 열풍과 대고조 시대의 북한연극」, 『플랫폼』 제25집, 인천문화재단, 2011.

_____, 「북한연극의 공연방식과 미학」, 『한국극예술연구』 제13집, 한국극예술학회, 2001.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05□□□_□□□□□□16□ 14. 2. 10. □□ 3:21 Page 134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정창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 전망」, 『EAI 이슈브리핑』 32집, 동아시아연구원, 2012.

조찬래, 「김정은 세습체제의 구축과정과 변화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61집, 한국동북아학회, 2011.

05□□□_□□□□□□16□ 14. 2. 10. □□ 3:21 Page 135

Abstract

North Korean plays in Kim Jong-un era

—revolve around plays after 2011

Hwang, Hee Jung

This paper grasps the recent trend of North Korean's theatrical world and policy implications intended for plays published in 『Joseon Arts』.

Through the analysis of plays, North Korea creates plays that "contribute to eternal life for leaders" and continues to evaluate. It can be noticed that they are actively idolizing by refocusing on the achievements of the late father Kim Jong-il.

This trend of works shows North Korea's political intention. Since Kim Jong-un is in an early stage of seizure, it is more effective to highlight the image of successor who emphasizes Kim Il Sung-Kim Jong Il's achievements and achieve and accede those achievements. In plays, the appearance of Kim Jong il in march of hardship, contents about Pyongyang Folk Park, CNC and completion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and strategy of Kim Jong-un era to stabilize succession system by acquiring leadership image that emphasizes 'Kim Jong Il patriotism' and 'Kim Il Sung-Kim Jong Il belief' are contained.

Political intentions of Kim Jong-un era appeared in dramas seem to constantly appear not only in dramas, but also in various media

05□□□_□□□□□□16□ 14. 2. 10. □□ 3:21 Page 136

including cultural and arts genres.

주제어: 북한연극(North Korean drama), 북한희곡(North Korean play), 김정은(Kim Jong-un), 김정일(Kim Jong Il), 조선예술(Joseon Arts)

논문 접수일 2013. 11. 08. | 논문 심사일 2013. 11. 22. | 게재 확정일 2013. 12. 13.